



도 담 도 담



● 불법촬영 법령 개정 주요 내용

2018. 12. 18. 시행

1. (비)동의 촬영 및 영리목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

❖ 비동의 촬영죄 벌금 상향

5년 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하 벌금
⇒ 5년 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

❖ '동의 촬영' 후 비동의 유포도 '비동의' 촬영과 동일하게 처벌

(개정 전)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/ 5백만원 이하 벌금
⇒ (개정 후) 5년 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

❖ '영리목적' 비동의 유포 벌금형 삭제

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⇒ (개정 후) 7년 이하 징역

2. 불법촬영·유포의 객체 추가 처벌 범위 확대

❖ '자신의 신체 촬영물' 을 비동의 유포 하는 경우도 처벌

(개정 전) 불법촬영 객체를 '타인의 신체'에 국한, 자기촬영물 유포시 정보통신망법 의율 <1년 이하 징역 / 1천만원 이하 벌금>
⇒ (개정 후) 객체를 '사람 신체'로 변경
5년 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

❖ 유포의 객체에 '촬영물 외 촬영물의 '복제물' 추가

(개정 전)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촬영한 경우 처벌 불가<대법 '18. 8. 30.>
⇒ (개정 후) 5년 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

● 일상생활 속 "성평등 실천약속"

직장

성평등한 직장 문화, 나부터 우리부터

-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평가합니다
-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지 않습니다

일

일·생활균형을 실천하는 사회로

- 정시 퇴근 YES! 퇴근 후 업무연락 NO!
- 엄마, 아빠의 육아휴직이 당연한 문화

집안

집안 일, 함께 하고 함께 쉬고

- 가사일은 부부가 함께 합니다
- 명절은 온 가족이 같이 준비합니다

가정

엄마 육아에서 부모 육아로

- 육아는 엄마, 아빠가 공동으로 합니다
- 학부모 모임에 아빠도 적극 참여합니다

사회

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로

-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에티켓 지키기
- 여성이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듭시다

